

바르게 배우는 교회•행하는 교회•전하는 바로 그 교회

제42권 34호

2026.8.23

짧은 글 깊은 생각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각과 말, 선택과 행동이 시작되는 삶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면 인생의 방향도 흔들리고,
마음이 병들면 겉으로 아무리 좋아 보여도 삶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은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죄와 욕심, 두려움과 원망, 교만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기도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아야 합니다.
또한 겸손한 태도로 배우고, 섬과 안식을 통해 내면을 점검해야 합니다.

입과 눈과 발도 지켜야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보고, 어디로 향하느냐가 마음을 만듭니다.
감사와 평강의 말을 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며, 인생의 조종실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이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중에서-



신석장로교회

담임목사 박근상

306-190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201-1
34305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601번길 26
(엑슬루아파트 후문, 등마루 공원 앞)

교회 ☎ 932-5478 목사관 ☎ 934-9817 ☎ 사무실 934-9192

홈페이지 shinseok.net 유튜브 [박근상매일성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주 일 낮 예 배			
1부:오전8시		2부:오전9시30	3부:오전11시
		인도: 박근상 목사	
기 도			다 갈 이
경배찬송	1장		다 갈 이
성시교독	10번 시16편		다 갈 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갈 이
찬 송	장		다 갈 이
기 도			1부 오종화집사 2부 이효정권사 3부 태영성집사
성경봉독	에베소서2:1-7		인 도 자
찬 양	십자가로 가까이		성 가 대
설 교	땅에서 하늘을 사는 사람		박근상목사
기 도			인 도 자
찬 송	288장		다 갈 이
헌금봉헌	헌금함예		다 갈 이
헌금기도			인 도 자
광 고			인 도 자
찬 송	기쁨으로 찬양		다 갈 이
축복기도			박근상목사

■ 금주의 말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엡2:6,7

삼일예배 오후 7시 30분

합심기도
기도/ 박범순 권사
말씀/ 박근상 목사
기도의 무기(7) 엡6:18-19
찬송/ 210장
주기도문

새벽기도회

오전 5시 2층 본당

말씀/ 박근상 목사 성경- 에스겔 강해

*주일은 새벽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 교회소식 ■

- 1. 매일 에스겔을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 2. 주보에 ‘잠언에 숨겨진 보석을 찾아서(1)’ 나갑니다.
- 3. 삼일예배에 “기도의 무기”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 4. 하반기 중보기도실 사역자를 모집합니다.(9-11월)
자세한 것은 게시판을 참고 하세요
- 5. 엘리베이터 교체 후원금을 요청합니다.

신석주간기도

- 오직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합심기도-

신실한 예배와 섬김, 일치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교회 다음세대 사역에 큰 부흥이 임할 수 있게 하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 사역에 더 충만한 회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치료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 말은 청지기 ■■

	안 내	기 도	꽃꽂이
이번주	1층 김장옥 오종수 2층 최정선 이화옥 주차안내- 이상열 황학성	오종화 이효정 태영성	류수현/자녀감사
	1층 이길연 이흥용 2층 최정선 이화옥 주차안내- 이상열 황학성	김실근 최정선 박성훈	김춘자/자녀감사

청소담당:2,3층 이번주(08,28) 7구역(김순자) *1,4,5층은 담당자들이 수고하십니다.
다음주(09,04) 8구역(천영애) *1,4,5층은 담당자들이 수고하십니다.

유아부(4층 유아실) 주일 오전11시 사회자 -윤태영 전도사 설교자 -윤태영 전도사 본 문 -요5장 24절 제 목 -복음을 믿어라	활동 1.8월 암송 말씀은 빌 4장 4절입니다. 2.오늘의 활동은 복음카드 만들기입니다.
유초등부(1층 교육관) 주일 오전11시 사회자 -윤태영 전도사 기도자 -송춘자 선생 설교자 -윤태영 전도사 본 문 -요5장 24절 제 목 -복음을 믿어라	1.8월 암송말씀은 빌 4장 4절입니다. 2.매일 성경큐티와 성경 읽기열심히 하기
중고등부(5층 예배실) 주일 오전9시 사회자 -김형섭 형제 기도자 -서예성 형제 설교자 -최민관 목사 본 문 -출애굽기 20장 1~17절 제 목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1.8월 성경읽기는 출애굽기, 암송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24절입니다 2.8/30(주) 예배인도 김형섭 형제, 대표기도 이재용 형제, ppt 오한금채 자매입니다. 3.새롭게 시작된 2학기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길 기도합니다.
청년부(5층 예배실) 주일 오후2시 사회자 -김금모 형제 기도자 -한현진 자매 설교자 -최민관 목사 본 문 -잠언 3장 1~6절 제 목 -그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1.8/29(토)10시 교회봉사 후 11시 사도행전 5장 말씀읽기, 나눔, 기도회합니다. 2.8/30(주) 대표기도 강찬석형제입니다. 3.9/139주) 노방전도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는 청년부 되시길 바랍니다.

공동 예배		
주일낮예배	1부 오전 8시 2부 오전9시 30 3부 오전11시	영유아유초등부 주일 오전 11시
수요일예배	오후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9:00
새벽기도회	매일오전5:00	청년부 주일 오후2시



솔로몬에게 묻다

잠언에 숨겨진 보석을 찾아서(1)

우리 모두는 어디론가 가고 있는 길 위의 인생이다. 때로는 길이 막힌 것 같고,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계속 움직이고 있다. 인생은 여행과 같아서 끝에는 도착하게 될 지리가 있다. 그 길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도 주셨고, 예언자의 말씀도 주셨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포해 주셨다. 그런데 살아보면 그것만으로는 다 설명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많다.

예를 들면 누구와 결혼해야 할까? 어떤 일을 선택해야 할까? 힘든 상황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 돈은 어떻게 써야 할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디까지 말하고 어디서 멈춰야 할까?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하라” 또는 “하지 말라”로만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언을 주셨다. 잠언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지를 가르쳐 주는 책이다. 거창한 종교 이야기만 하는 책이 아니라, 아침에 어떤 말투로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돈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어떤 친구를 가까이해야 하는지, 화가 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다.

잠언 27장 14절에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면 오히려 저주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말씀이 있다. 재미있고 현실적이다. 좋은 말도 때와 방식이 맞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이런 작은 일에도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므로 잠언은 단순한 처세술 책이 아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을 알려주는 책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책이다. 천천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생각과 말과 선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쌓이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주기도 하고 어리석은 사람에게 지혜의 길을 보여준다. 죄인에게 은혜를 말해 주고 잠언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상담자이자 멘토로 다가오신다.

종종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만날 때 전문가를 먼저 찾는다. 물론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종교적인 문제에만 관계된 분으로 제한할 때가 많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

에서만 부르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직장, 가정, 인간관계, 돈 문제, 선택의 순간에도 가장 지혜로운 분이시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사람을 깊이 아시는 분이셨다. 아무도 그분을 속일 수 없었고, 어떤 사람도 그분을 말로 몰아붙일 수 없다. 예수님은 사람의 겉모습보다 마음을 보셨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한다. 그러니 잠언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는 일이다. 복음을 듣는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 멀리 갈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된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된다.

지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장식품이 아니다. 지혜는 삶과 죽음의 문제이다. 사랑이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용기가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무모한 실수를 할 수 있다. 진리를 알아도 지혜가 없으면 복음을 거칠고 차갑게 전할 수 있다. 열심이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사람을 지치게 만들 수 있다.

성경은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이고, 다른 하나는 땅에 속한 지혜이다. 땅에 속한 지혜는 계산적이다. 손해 보지 않으려 하고, 자기를 지키려 하고, 편한 길을 찾는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지혜입니다.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를 내려 놓는 지혜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말했을 때,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이해가 될만한 말이다. 자신이 생명처럼 사랑하는 선생님이 고난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라고 책망하셨다. 사람의 이치로는 옳아 보이는 것 같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는 한없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잠언이 가르치는 지혜는 단순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피가 아니다. 좀 더 약삭빠르게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우선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길이 더 높고 선하다는 것을 믿는데서 시작된다.

잠언의 중심 구절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겁에 질린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심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정보가 차고 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정보의 문에 열려서 뭐든지 알고 싶은 것을 다 알아낼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 수 없이 영상과 글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나 정보가 많다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산만해지고, 깊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리기 쉽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그 정보를 바르게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이다.

잠언은 인간을 “어리석은 자” 또는 “단순한 자”라고 부른다. 이 말은 우리의 가치를 깎아내리려는 말이 아니고 사실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을 제대로 보신다.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결정을 미루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한다. 때로는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변명부터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잠언을 읽기 전에 먼저 겸손하게 인정할 것이 있다. “하나님, 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배우려는 사람이 앞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가는 첫 걸음이다.

잠언 9장에는 두 여인이 등장하기를 지혜로운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이다. 둘 다 길가에서 사람들을 부른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오라.” 같은 말을 하지만, 그 끝은 전혀 다르다. 어리석음의 부름을 따르면 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결국 돌이키기 어려운 길로 가게 될 것이고 지혜의 부름을 따르면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누구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우리는 매일 두 부름 사이에서 서성이고 있다. 쉽게 화내고 싶은 마음, 편한 길만 가고 싶은 마음, 남 탓하고 싶은 마음, 내 뜻대로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흔든다. 동시에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를 곁에 부르시고 속삭이신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나를 따라오라.”

잠언을 통하여 그 부르심을 듣게 될 것이다. 말과 생각과 선택을 조금씩 다듬어, 결국은 예수님의 길을 걷게 할 것이다. 그 길은 때로 십자가의 길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생명의 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명심하자. 잠언은 오래된 격언집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지혜 길로 인도하는 초대장이다.

나눔식 소그룹 에스겔 47:1~12(8월 27일 본문)

생명을 주는 은혜의 강물

하나님 찬양하기 * 이곳에 생명 샘 솟아나 (경배와 찬양)

Focus :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는 생명이 되어 우리를 살립니다.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 읽기 에스겔 47:1~12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40~42장에는 새 성전의 구조와 특징이 환상 가운데 상세히 제시됩니다. 43~46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한 이후, 성전과 관련된 여러 규례가 이어집니다. 47장에 이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는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 세상이 회복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환상은 태초에 에덴에서 흘러나온 강을 떠올리게 장면이 나타납니다(창 2:10). 성전에서 발원한 물은 동쪽으로 흘러 아라바를 지나 바다에 이르는데, 이는 당시 유다 광야와 사해로 이어지는 지리적 배경 속에서 전개되는 장면입니다.

관찰과 묵상

1. 늦같이 빛난 사람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계속 측량하니, 차오른 물은 어느 정도가 되었나요?(5절; 참조. 40:3)

2. 성전의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생기나요?(8~12절)

적용과 나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경험한 치유와 풍요는 무엇인가요? 지금 내 삶과 공동체의 어떤 영역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가길 간구해야 할까요?

말씀 다지기

하나님 은혜는 인간의 이해 영역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포기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열어 가십니다. 생기를 잃은 공동체의 메마른 삶도 하나님의 임재로 새로운 시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에 회복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강물은 황무지 같은 곳을 풍성하게 열매 맺는 자리로 변화시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죽음을 압도하는 생명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힘있게 의지함으로 풍성히 열매 맺는 삶을 이어 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기

1.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안들이 특정 집단의 야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여 하나님 나라가 가치를 실현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2. 아이티 사람들이 영적 억압 속에서 자신을 저주받은 존재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기도합니다(179쪽 '땅끝에서 온 편지' 참조).

* 찬양, 헌금, 헌금 기도 및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메모

본문:

제목:

이름:

주님의 시간에



이번 주간에 꼭 실천해야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신석장로교회는

1984년 5월 17일에 설립된 예수교장로회(대신)총회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전하는 그 교회가 영구표어입니다. 박근상 담임목사는 대덕구기독교연합회 회장, 대덕경찰서경목실장 대전기독교연합회회장, 부총회장을 역임하고 대전극동방송, 대전기독교방송을 통하여 1만회 이상 매일 강해설교를 했고 유튜브[박근상매일성경]을 2600여회 방송중입니다.

■유튜브 [박근상매일성경] ■홈피 shinseok.net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박근상

교육목사: 최민관 전도사:윤태영

사무장로: 김일남 박현철 오종수 유상수 이상선 이상열

협동장로: 박성훈

사무간사: 손영문 건물관리 총무: 오종수

성가대지휘: 최의석 반주: 피아노- 김래아 유혜환 오르간:

찬양인도: 최의석

방송.영상: 중보기도사역팀: 천영임

홈피 관리: 최민관 손영문

이슬비전도대 총무: 노인숙 협동총무 장민채

강단꽃꽂이: 김향례 박중례 손영문 유은희 최금숙 황순화

차량봉사: 남기성 이상열 유상수 주차관리 : 김종기 오종수 이상열 황학성

담임목사 방송사역

10 분 설 교	대전극동방송(FEBC)	매주(월) 오전10시 50분(내가 매일 기쁘게)
주 일 설 교	대전기독교방송 CBS	매주일 오후5시 (신석의 시간)
오늘의 은혜로	대전기독교방송 CBS	매주(금) 오후1시 5분-15분
TV방송칼럼	대전CTS	매주(토) 오전 10시 50분(로렘나루)